

세계침술봉사協 (WASA) '한국-티베트 풀뿌리운동' 계승



가덴장세 승가대학 부속병원에서 침술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마을 사람들



'와사' 이홍재 회장과 네팔인 '와사' 회원(왼쪽 두번째 여성)이 상담을 해주고 있다



가덴장세 승가대학 부속병원 앞에서 대학병원 관계자와 '와사' 회원들이 기념촬영한 모습

한국 불자들이 풀뿌리처럼 연계해서 티베트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류를 갖자는 목적으로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개인과 단체간에 다양한 인연을 맺는 한국-티베트 풀뿌리운동.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것은 티베트 최고의 승가대학인 가덴장세승가대학 후원회인 경우 풀뿌리운동에 동참한 한국 불자에게 그 장학금을 받은 티베트 학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확인서가 전달됐다.

이처럼 풀뿌리운동은 티베트 사찰, 단체, 교육기관과 유대관계 또는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국내 개인, 사찰, 단체 등에게 연결고리를 제공해 온 것이다. 지난 2005년 초 한국-티베트 간의 실질적인 불교문화교류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현대불교신문사가 앞장서 출범한 풀뿌리운동이 7월부터 세계침술봉사협회(WASA - World Acupuncture Service Association, 이하 와사) 주축으로 펼쳐나간다.

'와사'가 풀뿌리 운동을 계승하기로 결정한 직접적인 이유는 풀뿌리 운동과 와사의 결합으로 양쪽 모두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와사'는 지

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티베트 가덴장세 승가대학 부속병원에서 침술봉사활동을 벌이며 그 가능성을 타진했다.

'와사'의 이홍재 회장은 "30년 간 한국·인도·네팔·스리랑카·터키 등지에서 침술봉사활동을 펼쳐 온 경험을 세계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국불교를 알리고, 또 불교의 무주상보시의 정신을 심어놓겠다"고 밝혔다.

'와사'의 풀뿌리 운동 기본 방향은 후원사업 뿐만 아니라 침술교육과 봉사활동 등으로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와사'는 우선 가덴장세 승가대학에 의대설립운영을 통한 '의술이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편, 다른 불교단체에도 의대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는 침술을 배워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티베트 스님 30명을 우선 선발해 가덴장세 승가대

티베트에 의대 설립·침술교육

인도·북중미·세계 기구로

활동 영역 넓힐 계획

학 의대에서 1년 간 침술을 가르친 뒤,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스님들이 교수인력이 돼서 다른 지역에서 침술을 가르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 번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침술봉사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들을 티베트뿐만 아니라 인도·네팔·부탄·몽골 등 티베트 스님과 티베트 난민이 있는 곳에 배치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전 세계로 영역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미국 LA에 한의대를 설립해 중남미 쪽으로 봉사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미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와사'는 이미 이곳에 침술을 가르치는 '아메리칸 배달 유니버시티'를 세웠으며, 올 여름학기부터 개강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강과 함께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지역에서 침술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와사'는 이 같은 활동을 토대로 미국정부에 '와사'를 봉사단체로 등록하는 한편, 유엔(UN)이나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에 진행돼 오던 풀뿌리 운동 가운데 티베트 사찰, 단체 교육기관과의 유대관계 및 자매결연 등의 사업은 그대로 계속된다. 자매결연한 단체들 간에는 상호방문 및 학인 교환학생 제도 등을 통해 양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풀뿌리 운동에 참여하는 일반 불자들에게는 다람살라를 방문해 사찰순례와 함께 티베트 스님들의 수행모습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와사'의 이홍재 회장이 가덴장세 승가대학의 비구스님에게 침술치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와사

▶ '와사(WASA)'는 어떤 단체?

'와사(WASA)'는 1998년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UP)주에 NGO로 등록된 명실상부한 국제 봉사단체. 실천을 통한 무주상보시를 모토로 창립돼 국내에서 침술봉사활동을 벌여온 '불가침구학회'가 그 모체다.

1982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조계사 옆 원당빌딩에 자리를 잡은 불가침구학회는 1년 과정의 전통침술 강자를 마련해 현재까지 120기 1500명의 회원을 양성했으며, '자비의 손 법당'을 개설해 하루 1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았다.

이렇게 봉사활동에 주력해 온 불가침구학회는 1992년 인도 명상단체 아난다다가가 운영하는 고아원을 지원하기 위해 '나를 태워 빛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구성, 국제봉사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1993년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한 불가침구학회는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무료침술봉사를 벌이기 위해 아난다다가의 의과대학에 침술과정을 개설,

인도인 활동가를 양성했다. 그리고 1995년 인도 바라나시의 사르나트, 캘커타, 뉴델리, 란치 등에 무료침술봉사센터를 개설하고 인도인 활동가들을 이곳에 분산 배치해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 '실천과 보시' 모토로 창립 불가침구학회가 모체

1992년 국제봉사 시작

범문화 상호 교류 프로젝트

▶ '한국-티베트 풀뿌리 운동'은?

'한국-티베트 풀뿌리 운동(Grassroots Movement)'은 한국과 티베트 간의 학술·의학·예술·종교 분야 등 범문화적인 상호 교류 프로젝트.

2005년 초부터 티베트와의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해 온 본사는 2005년 7월 달라이 라마 동북아시아사무소(일본 신주쿠 소재) 한국지부가 서울 청운동 본사 연수원에 설치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풀뿌리 운동을 전개해왔다.

이 운동의 특징은 한국 불자들이 풀뿌리처럼 연계해서 티베트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류를 하자는 목적으로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지난해 7월 만다라 전시회

시작으로 티베트 스님 후원

1인 1구좌 갖기 운동 전개

개인과 단체 간에 다양한 인연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풀뿌리 운동의 첫 시작을 알린 것은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모래 만다라 전시회. 2005년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법원사 불일미술관과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 모래 만다라 전시회와 티베트 규모 사원 특별예불의식 시연회는 많은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성공리에 행사를 마쳤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 티베트 스님들을 후원하는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벌여 티베트 최고의 승가대학인 가덴장세승가대학(Gaden Jangtse Norling College)과 비구니 교육기관인 잠양 초림(Jamyang Choling Institute), 티베트의 대표적 사원인 규토사원(Gyuto Monastery)을 후원했다.

▶ '인연맺기 운동' 동참 방법

1구좌는 1개월에 3만원. 이 1구좌로 티베트 스님 한 명의 한 달간 숙식 및 밥비가 해결된다. 1개월 또는 1년(10개월 기준, 30만원) 단위로 보시가 가능하며 일정 금액에 한해 별도의 개인보시도 가능하다.

후원자가 되면 본인이 후원하는 스님의 졸업식, 학위수여식 등에 초대된다.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 광명장부 방문 시 후원 스님과 함께 스님이 머물고 있는 해당사찰을 둘러볼 수 있다.

▶ 후원문의: 인성준 사무국장 (010)3176-0772

알기쉬운 佛敎 儀式

新刊 通用佛敎儀範 案内



귀의삼보하옵고 불교란 어떤종교인가? 깨달음의 종교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업에 의한 윤회를 믿고 보살행을 실천하여 성불하기를 염원하는 종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방하는 불제자로서 의식법전의 순서의 어려움이 많아 수행하는데 우월좌왕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모든 불교의식집을 참고로 하여 의식을 간편하게 편지하여드립니다. 의식이란 보는 이에 따라 甲論乙駁이 있었으나 수행 초심자가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 이 의식집을 펴면 편 패이지를 찾지 아니하고 모든 의식을 집전할 수 있도록 편지되어 있습니다.

▶ 총 1099페이지 법보가 ₩45,000

■ 통용불교의범 특징

불보살 모든 불공의식은 불공의식 대로 편지되었으며 제록만 찾아온 모든 불공을 모실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특징인 것입니다.

- 제1장 승주편
- 제2장 예경편
- 제3장 전각예경편
- 제4장 불공편
- 제5장 모든법회
- 제6장 방생
- 제7장 재물보살복장정민식
- 제8장 재물보살
- 제9장 파불의식
- 제8장 점안편
- 제9장 이운편
- 제10장 수계편
- 제11장 고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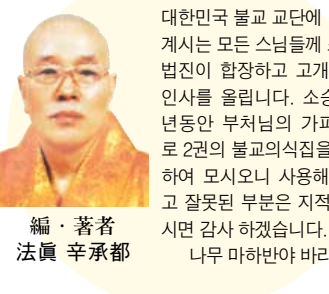
알기쉬운 齋禮 儀範

新刊 通用齋禮儀範 案内



천지지만 만물지중이 유인이 최귀하고 유만물지 중이 유인이 가장 귀한 사람이 있으면 예(禮)가 있고 예(禮)가 있으면 의식(儀式)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교의 1700년 역사속에 細難難해 집합한 의식집이야말로 참으로 고귀하고 원만한 의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문으로 된 의식집을 가지고는 어느 것을 먼저하고 어느 것을 뒤에 하는지 순서를 몰라서 우월좌왕하는 때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또한 매강문화에서 화강문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제례의식을 현실에 맞도록 모든 불교의식집을 토대로하여 초보자라 하더라도 집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총 1180페이지 법보가 ₩45,000



대한민국 불교 교단에 계시는 모든 스님들께 소송 법진이 합장하고 고개 숙여 인사를 올립니다. 소송이 2년동안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2권의 불교의식집을 출간하여 모시오니 사후에 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 마하리야 바라밀

- 제1장 시식편
- 제2장 장의편
- 제3장 다비편
- 제4장 四十九齋
- 제5장 재공편
- 제6장 기제사
- 제7장 靈魂結婚壇

주문처: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 출판부 | 발행처: 도서출판 도승 | 편·저자: 범왕불교대학장 신 법진 합장

☎ (02) 963-0607, H.F:017-361-1131 ☎ (043) 264-3008, H.P:011-9607-2199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2동 421-3번지 | 국민은행: 027701-04-060958 | 우체국: 013409-01-001220 | 예금주: 호국불교효예중 총무원